

한국대학생방일단 (제 1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 개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한 방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 35명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앞으로의 일한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일했습니다. 방일단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5년, 피해 지역 시찰과 일본의 방재’ 라는 주제 아래 도쿄도, 가나가와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시찰, 일본 대학생들과의 교류, 주제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등 총 35 명

【방문지】 방일 (도쿄도 35 명, 가나가와현 35 명, 미야기현 35 명, 이와테현 35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 학습):

2026년 6월 19일 (금)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2026년 7월 1일 (수)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시찰】 고 이수현씨 추모 및 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2026년 7월 2일 (목) 【학교방문 · 교류】 페리스여학원대학 (フェリス女学院大学)

2026년 7월 3일 (금) 미야기현으로 이동

【시찰】 오나가와 (女川) 지역의 부흥 상황 : 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

【시찰】 진재유구 (震災遺構) 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大川) 초등학교

2026년 7월 4일 (토) 【시찰】 미나미산리쿠 (南三陸) 지역의 지반을 높이는 부흥 상황, 진재유구 미나미산리쿠 방재대책청사 등, 진재유구 기적의 소나무, 진재유구 게센중학교,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뮤지엄,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6년 7월 5일 (일) 홈스테이

2026년 7월 6일 (월) 홈스테이 해산식, 【특강 · 시찰 · 교류】 이시노마키센슈대학교 학생과의 공동 수업(이시노마키 시내 복구 상황 강의, 한일 혼성 그룹으로 실제 도시재생 현황 필드워크 및 복구 방안에 대한 토론, 그 성과를 이시노마키시청에 제언으로 제출), 성과보고회

2026년 7월 7일 (화) 센다이공항 출국

2. 기록사진

	
2026 년 7 월 2 일 【학교방문 · 교류】 페리스여학원 대학	2026 년 7 월 3 일 【시찰】 오나가와 지역의 부흥 상황 : 방조제가 없는 부흥 사례
	
2026 년 7 월 3 일 【시찰】 진재유구 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초등학교	2026 년 7 월 4 일 【시찰】 진재유구 게센 중학교
	
2026 년 7 월 4 일 【시찰】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전승관 이와테 쓰나미 메모리얼 뮤지엄	2026 년 7 월 5 일 【교류】 홈스테이
	
2026 년 7 월 6 일 【특강 · 시찰 · 교류】 이시노마키 센슈대학교 학생과의 공동 수업	2026 년 7 월 6 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한국 대학생

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초등학교 시찰을 통해, 참사의 원인이 사전 재난 방지 시스템과 구체적인 대피 방안의 부재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유족이자 교사임에도 당시 선생님들을 탓하지 않고 포용하는 가이드분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참사를 슬픔으로만 묻어두지 않고 학교의 교훈처럼 ‘미래를 연다’라는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발생하여 잘 알지 못했던 동일본대지진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구체적인 쓰나미 대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피해 현장을 보며 재난은 시간이 지나도 지역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남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난의 흔적을 보존하며 후세에게 교훈을 전하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해피엔딩을 위해, 모두가 살아남아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란 말이 재난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홈스테이에서 가족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 해서 대화를 많이 못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콘텐츠를 접할 때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분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면서, 일본어를 배워서 앞으로 일본 분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일본측 감상(발체)

◆ 방문학교 학생

교류회에 참가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 토론을 통해 한일 양국의 취업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의 대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방문학교 학생

지금까지 또래 한국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서로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

모두 정말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분도 있어 일상적인 대화를 일본어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본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한국이 좋아졌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기사 등

 2026년 7월 1일 (Naver Blog : 고 이수현씨 추모 및 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이수현 의인은 지난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 경, 야마노테선 신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스크린도어가 없었기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외국인이 희생해가며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에 일본 사회는 감동을 표했고, 이후 스크린도어가 각 역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이수현, 1월의 햇살」이라는 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과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자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추도비 앞에 섰다. 괜히 뭉클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일 (Naver Blog : 대학방문) 한국과 일본의 동아리활동 -한국은 입시위주, 즉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동아리를 하지만 일본은 자신의 흥미에 맞춰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청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입시위주 말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 (Instagram : 진재유구 오카와 초등학교) 3.11 대지진/쓰나미로 당시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희생된 아이의 아버지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2026년 7월 4일 (Instagram : 진재유구 케센중학교) 학교 전체가 잠길만큼 쓰나미가 몰아쳐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앞둔 학생들이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참 안타까웠습니

게 설명해 주셔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전의 대비/방재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기억을 미래에 전해가는 중요한 장소라고 느껴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 비록 이 학교의 학생들은 높은 곳으로 잘 피해서 괜찮았지만 마을이 뒤덮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초월한 수기 및 서툰 소감】

초월한 수기 및 서툰 소감

초월한 수기 및 서툰 소감

초월한 수기 및 서툰 소감

【참가자 표현】

참가자 표현

참가자 표현

참가자 표현

【테마 관련 시찰 소감】

테마 관련 시찰 소감

테마 관련 시찰 소감

테마 관련 시찰 소감

【성과발표】

귀국 전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성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발제).

동일본대지진 관련 시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나가와 마을의 사례입니다. 이전까지 쓰나미 방재란 그저 방파제를 높이 쌓아 파도를 막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높이를 올리는 대신 바다가 보이는 마을을 조성한 오나가와 마을의 접근법은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가 30~40 대의 젊은 세대에게 마을의 부흥을 과감히 맡겼다는 오나가와의 특징과 정신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가 쓰나미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후세에 전할 '카타리베(이야기꾼)'를 육성하는 모습은 한국의 방재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느꼈습니다.

- 지진 피해와 방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단순히 지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생각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잘된 점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액션플랜】

참가자들의 액션플랜(귀국 후 3 개월 이내에 실시 예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발제).

- “한국(경주)과 일본의 지진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교류대학 학생 및 홈스테이 호스트와의 대화를 지속하고, 그 내용을 SNS 를 통해 짧은 기록 형식으로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재난 예방 정보와 안전 대책을 공유하면서,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재난 예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지진 피해 및 방재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작성할 것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들은 피해자들의 경험담과 제가 직접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과 복구 과정, 방재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진 재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의 모습과 당시의 피해 상황, 복구 및 부흥의 과정을 소개하는 YouTube 쇼츠와 Instagram 릴스를 제작하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지진 재해의 교훈과 방재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흥 과정과 문화, 관광 자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피해 지역이 걸어온 역사와 현재의 매력을 알고자 합니다.

• 이번 일정에서는 시간 관계상 방문하지 못했던 진재유구와 관련 코스도 포함하여, 1~2 일 동안 둘러볼 수 있으면서 지진 재해와 관련된 배움도 얻을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 SNS 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실시단체 평가》이러한 액션플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단원들이 일본 대학생 및 홈스테이 가정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SNS 를 통해 ‘지진 방재’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운영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양국의 공통 과제인 ‘자연 재해’에 관해 서로의 상황과 대응 방식을 배우고 대책을 공유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사업 관계자 간 긴급공통 과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액션플랜을 통해 단원들이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방재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진 피해 지역 재방문과 이를 통한 새로운 대외 정보 발신 등도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정보의 발신은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수준에 있는 일본의 지진 대응 및 방재 기술에 대한 관심을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한국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환기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진 피해 지역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복구·부흥 과정과 관광자원 등 현재 각 지역이 지닌 매력에 대해서도 정보를 발신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내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히 도호쿠 지방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 등 품평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일본 방문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끝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